

삼표그룹, 삼표기초소재·네비엔·경한 합병

환경자원사업, 미래 먹거리로

합병사 매출 2020년 1兆원 목표
새 사명은 '에스피 네비엔'으로
합병 이후 각 대표이사 체제 유지



삼표그룹이 삼표기초소재, 네비엔, 경한을 합병하고 '환경자원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워나가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이들 합병 계열사 매출은 2017년 기준 6263억원에서 2020년까지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표는 지난달 23일 이사회 의결과 이달 8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오는 3월까지 세 회사의 합병 작업을 완료한다고 10일 밝혔다. 삼표기초소재가 네비엔, 경한을 각각 흡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새 사명은 '에스피 네비엔'이다.

삼표의 이 같은 결정은 사업 성격이 비슷한 기업을 묶어 경영을 효율화하고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기존에 흩어져 있는 비슷한 사업군을 한 데 모아 공통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나간다는 포석인 셈이다. 다만, 업무 연속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3월 15일 합병 이후에도 각자 대표이사 체제는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삼표기초소재는 콘크리트·시멘트의 핵심 재료인 골재·슬래그·플라이애시 등을 생산하고, 네비엔과 경한은 철근의 주재료인 철스크랩(폐철) 가공을 각각 주력으로 삼고 있다.

이들이 모두 건설기초소재를 생산하는 계열사지만 관리·판매·연구개발(R&D) 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어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따라 그룹에선 합병이 기업 가치 제고에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서

장 경쟁력이 높아지고, R&D 투자 효율성도 커질 것"이라며 "중복 투자 방지, 설비 공동 이용 등을 통한 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표가 이번에 세 회사를 합치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환경자원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기존 네비엔과 경한의 철스크랩 가공, 철강 부산물 재활용, 건설 폐기물 처리, 폐기물 소각장 사업 등 환경자원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져나간다는 것이다.

삼표는 또 이번 합병 외에 조직 효율화 작업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오규 삼표그룹 경영지원총괄 대표는 "앞으로 수년간 어려운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그룹 내 중복사업 통합, 인력 재배치, 부서별 역할·책임 재정립 등 조직 개선작업에도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차기회장 '5파전'

28일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서 투표

중소기업계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에 5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난 7~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 이달 28일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10일 중앙선거관위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김기문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제이에스티나 회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광명전기 회장),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한용산업 대표),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프림파스트 대표),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세진텔레시스 대표)이 각각 출마했다. 당초 후보자로 나올 것으로 관측됐던 박상희 전 중기중앙회장은 기권했다.

이들 후보자들은 등록 마감후 추첨을 통해 기호도 배정받았다. 이재한(1번), 김기문(2번), 주대철(3번), 이재광(4번), 원재희(5번) 후보 순이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도 세 차례 열린다. 중기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들의 자질과 제시한 공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추첨 결과

□ 출 마 자 : 5명
□ 추정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기자회견실
□ 추정일시 : 2019. 2. 8(금) 18:05.

기 호	후보자명	비 고
1	이 재 한	
2	김 기 문	
3	주 대 철	
4	이 재 광	
5	원 재 희	

이달 28일 치러지는 중소기업중앙회 26대 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약들을 냉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개토론회는 후보자 소개와 각 후보자별 소견 발표, 중기중앙회 및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12일엔 대구 인터블로그 호텔, 15일엔 전주 르윈호텔에서 각각 열리며 서울·수도권 공개토론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 공개토론회는 중기중앙회 출입 기자단 주관으로 진행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선거인명부는 투표 전날인 이달 27일 최종 확정한다.

/김승호 기자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이 평소처럼 인적 붐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中企 “개성공단, 3通·경협보험 개선 절실”

남북협력사업 중단됐 국가 보상을
근로자 부족은 국제화로 해결해야

중소기업계가 개성공단을 놓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보장 대책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등을 강력 건의했다.

남북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제화하고, 경협 보험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폐쇄와 재개를 거듭했던 개성공단의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개성공단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다. 북측은 이틀날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 합의사항은 국회 비준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

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경협 투자보험과 관련해서 계약 한도와 보험금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보험 반환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기금인 가정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을 새로 만들 것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남북경협기금은 정부 출연금, 민간자본유치, 중소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대북 진출 관련 지원 자금과 사후 리스크 완화 지원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상품의 북한 내수시장 판매정책도 지원해 북한 시장 개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을 대비해 입주기업들이 내야 할 경협보험금 반환기한을

유예하고, 특례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한번 남북경협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제언을 이룬 시일 안에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은 경제 효과를 넘어 대화와 협력의 실질적 장이자 긴장의 완충지대로서 큰 역할을 해왔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나 수차례 재가동 의사를 확인하고 조건 조성에 따른 조속한 정상화를 합의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재개 조건을 조성하는 것 뿐"이라며 "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2차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재개 기반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TEMPUR® 혼수 가구 대전

Beauty and the Best SALE

2019. 2. 8 (FR) - 24 (SUN) / 17 Days

템퍼, 백화점서 신제품 '웨딩 프로모션'

템퍼는 오는 24일까지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전 제품 할인과 구매 금액대 별 일정 금액 할인, 일정 제품 구매 시 베개 및 매트 커버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백화점에 있는 템퍼 매장에선 오리지널, 클라우드, 센세이션 세 가지 매트리스 컬렉션의 러스, 엘리트를 15% 싼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아울렛 템퍼 매장에서는 이달 출시한 신제품 프리마 매트리스 구매 시 30% 가격 할인 혜택과 함

계 사은품으로 증명하는 오리지널 베개를 트레이셔널 베개로 업그레이드해 제공한다.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공통으로 진행되는 웨딩 이벤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N ASA 테크놀로지로 완성된 프리미엄 퀵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 청첩장을 소지한 고객에 한해 침대 세트 구매 시 프레임 또는 전동침대 20% 할인 혜택을, 매트리스 구매 시엔 수면 안대를 각각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